

한겨레



▲ 8월 13일 한겨레신문 3면

벤처열풍과 거품붕괴 속에서도 탄탄한 기술력과 앞서가는 아이디어로 대기업 못지않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의 사례를 짚어보고, 현재 정부의 정책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벤처무용론'을 거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한국경제의 토대를 이루나갈 '튼실한' 기술벤처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단련되고 탄생하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필요함을 보도한 기획기사

전자신문



▲ 8월 19일 전자신문 31면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가기 위해 혁신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혁신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한 개념으로, 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통해 혁신에 기초를 두고 경제의 밑거름을 메우는 참된 벤처기업 신화가 계속되어야 함을 제언한 산업연구원 주현 연구위원의 기고문

중기청, 수출 중소기업에 DUNS 넘버 무료 발급

중소기업청은 국내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넘버 발급기관인 'D&B코리아'와 제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게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DUNS 넘버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DUNS 넘버는 다국적 기업신용정보회사인 'Dun&Bradstreet' 사가 130개국의 8600만개 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9자리 코드로 세계시장에서 국제사업자 등록번호로 통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국제거래시 DUNS 넘버가 기업신용조사 과정에 활용되지만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를 알지 못해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D&B코리아가 유료(10만원)로 제공하는 번호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료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기업정보를 직접 기입해 등록하면 된다.

중기청, 창투사 건전화 위한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 조성

중소기업청은 8월 23일 하반기 창업투자조합 출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최대 3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와 100억원 규모의 유한회사형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8월 23일 밝혔다.

최대 3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는 창투사가 보유한 미회수자산을 인수,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에 재투자해 창투사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의 배드뱅크 성격이다. 중기청은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가 설립되면 자산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이뤄져 부실기업이 신속하게 퇴출되고 회생가능 기업은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청은 또 벤처 투자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캐피털 설립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식회사 형태와는 달리 유한회사 형태의 캐피털은 회사의 주주와 투자 담당자가 일치해 외부의 간섭없이 전문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해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털은 1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되며 중기청은 9월 초 운영사를 선정해 연내 결성할 방침이다.

KOTRA, IT중소·벤처기업 해외자금 유치 강화

KOTRA(대표 오영교)가 IT기업들의 해외자금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 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섰다. KOTRA의 해외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는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국내 300개 유망 중소기업의 DB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DB 구축은 국내 IT산업계 벤처·중소기업 중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발해 해외 투자자에게 홍보하고 투자와 연계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벤처기업협회와 주요 창투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추천받은 업체와 개별 신청기업 중에서 선별하게 되며 영문 IR자료를 작성해 구축하게 된다.

KOTRA는 구축된 DB를 전세계 36개 해외 투자유치 전담 무역관과 세계 은행 투자사이트, 외국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하고 참여 업체의 투자가 물색과 전략 파트너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기업들을 산자부와 KOTRA 주관 해외 설명회에 우선 초대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에 우수기업으로 추천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